

〈 제 14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 - 위원단 선발 2차 서류 평가 〉

이름	김주연
1.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5줄 내외 : 진부한 소개 내용은 삼가주세요.)	
<p>안녕하세요,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 김주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과거 교내토론대회에서 우승해보기도 하였고, 현재도 그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 TIME 구독 및 스크랩, 토론대회와 스피킹 대회 참여 등 시사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등 모든 기사를 즐겨 읽지만 저는 특히 사회과 계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나 인권에 관한 기사를 좋아하고 최근엔 통일, 위안부 문제, 사드와 같은 외교적 문제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p>	
2.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 내에서의 역할(위원장, 간사, 서기) 중 1순위와 2순위를 밝히고, 왜 본인이 선발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을 말하시오. (10줄 내외) * 처음 신청서에 선택하셨던 내용이 달라지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최종 결정해주세요.	
<p>저는 외교통상 위원회의 간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독서토론 동아리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매 토론의 사회자로 일하며 기본적인 진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말벗을 해주며 누구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위해 공연을 할 때 무대에 서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를 통해 무대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이자 사회자로서 봉사 무대에 매달 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그 누구보다 능숙한 진행을 이어갈 것을 장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 첫 모의의회이기에, 저는 이번에는 위원장보다 간사로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간사로서 이번 캠프에 임하며 모의의회 진행이 일반적인 진행과 다른 점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p> <p>Q. 혹시 신청서에 지원한 위원회와 지금 현재 선택하신 위원회가 달라지신건가요? A. 아니요.</p>	
3. 위원단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3줄 내외 : 공지사항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을 기재)	
<p>위원단은 각 부서의 리더로서 위원회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결하여 원활한 진행을 이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안건의 구성을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올바른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앞서 생각하여 회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p>	
4.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주세요. (10줄 내외)	
<p>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왔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의 흥미를 채 30분도 잡아두지 못했지만, 봉사를 해갈수록 아이들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영어 단어를 알려주며 실질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게 되었고, 이러한 봉사 경험을 통해 저는 그룹의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 선도부에 들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만 해도 동급생조차 잡지 못했지만, 어느새 선배를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배가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숙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선배의 반으로 직접 찾아가 선도부로 내려오라고 말했고, 선배가 무시하자 지속적으로 공지해 결국 그 선배가 스스로 선도부로 오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도부 경험을 통해 저는 상대의 계급에 관계없이 제 할 말을 해내는 법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일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p>	

그리고 현재 저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기획을 맡아가며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5.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이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활동명 기재)
또는 이번 청소년 국회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체명 기재)**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 모의국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디 토론을 좋아하고 시사에 관심이 많던 저는 모의국회에 당연히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것이 최근인 만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타활동에도, 혹은 청소년 국회에도 참가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이번 경험이 제게 좋은 시작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6. 저희 “제 14회 정기회의 & 청소년국회” 프로그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고, 다른 단체의 캠프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5~7줄로 요약해주세요.

“제 14회 정기회의 & 청소년국회”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은 만나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안건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입법청원이라는 한 목표를 두고 협력하며 안건들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의견 교류의 장에서 끝나지 않고, 청소년에게 나라를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협력을 배우고, 입법청원이라는 목표아래에 안건에 관한 논의를 하며 정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발전시킴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7. 현재 지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3:1이 넘는데요, 본인이 반드시 뽑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0줄 내외 : 구체적인 활동 포부를 밝혀주세요.)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만 같은 위안부 문제, 언제쯤 우리나라 땅으로 온전히 인정받을지 보이지 않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 그리고 최근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싸드 문제까지. 이 외에도 역사 왜곡, 불법 입국자, 외국인 노동자, 통일, FTA 등 수없이 많은 외교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도중에 의견에 분열이 오고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도 다양한 통솔 경험이 있는 저라면 그룹의 방향을 다시 제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 모두와 함께 주체적으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8. 캠프 기간에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노트북과 에그를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9. 위원장/간사/서기에 선발된다면 사전 교육 (오프라인 혹은 전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오프라인과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p>10. 신청하신 이번 캠프는 “입법청원” 하며 법안을 만드는 캠프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위원단에 배정받으신다면, 해당 위원회에 어떤 법안을 상정하시겠습니까? (10줄 내외 :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발의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p>
<p>IS의 테러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지금,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67조 (출국권고)의 2-3항을 보면, 제 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끼친 자, 혹은 그러한 위험을 보인 자’에 한해서 5일이 아닌 즉시 출국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혹은 이들의 시간을 주되, 일정 감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을 통해 출국권고를 받은 5일의 기간 사이에 실제로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외에도 캠프 기간 동안 입국 절차와 체류 등에 대해 팀원들과 이야기하며 테러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p>
<p>11. 위원단을 맡지 못하더라도, 이번 14회 정기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실 건가요? 서류평가나 전화면접에서 탈락한다면 “일반 청소년 의원” 으로 법안을 만들게 되십니다. 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예약금이 지불된 상태이므로 신청서 뒤 동의 서명하셨던 안내 중 <기간별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p>
<p>위원단을 맡으면 더 보람찬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제 본 목적은 직책이 아닌 다양한 의견의 교류와 입법청안이었기에 당연히 성실히 참여할 것입니다.</p>
<p>12. 위원단으로 선발되시고 캠프에서 정상 활동을 하게 되시면 캠페인 봉사시간 2시간 외에 위원단 4시간 봉사시간이 추가로 발급됩니다. 저희 단체는 봉사시간을 발행하지만 생활기록부 입력가능여부는 재학중이신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후 확인하지 않으시거나 뒤늦게 봉사시간 입력문제 때문에 캠프 취소는 불가능한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p>
<p>▶ 봉사 일시 : 8월 2일 화요일 13시 ~ 17시 봉사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봉사 내용 : 청소년 권익신장과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 캠페인 참여 발행 기관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담당자 : 윤지희 팀장 연락처 : 1544-8438</p>
<p>● 저희 단체 프로그램은 단순히 봉사시간이나 생활기록부 스펙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점 동의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p>
<p>당연히 동의합니다. 저는 토론과 시사를 정말 진심으로 즐기는데, 이 캠프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양한 시각으로 관심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그러한 열정과 애정이 위의 답변에 충분히 드러나있다고 생각합니다.</p>

㉠ 현재 의장단, 위원단 신청이 3: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면접만으로 선발한다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진심으로 이번 캠프에서 간사와 서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다시 받아, 지원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지원자 모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선발 결과를 공지할 때, 합격자의 서류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7월 8일 자정부터 7월 15일 자정까지 서류를 작성하신 지원자는 “2차 서류평가 - 홍길동”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yassembly2003@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는 모든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종료되고 방학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다고 판단합니다. 성실하게 위 문항에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정당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yassembly2003@gmail.com 으로 서류마감 이전에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16~17일 동안 서류채점이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별도로 “전화면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7월 18일 오후에 선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문자를 발송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전화면접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제 12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에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